

대입전형의 과감한 다양화를 기대하며

오 성 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예 나 지금이나 대학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대학을 다니던 지난 날과는 달리 이제는 누구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 하고, 학생들 역시 배움의 목표인 대학문을 향해 숨가쁘게 뛰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입시위주 경쟁교육 속에서 억눌리고 찌들어가는 이 땅의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적 현실이 되어 버렸다.

대학을 위한 사교육비 문제가 올해 들어 새삼스레 전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문민정부 들어 의욕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선전하기도 힘들며, 대선과정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내세우기 힘들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리라. 이리하여 부정부패와 연루된 검은 돈의 종착점이 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임금인상의 주범이라는 사교육비 문제는 이제 정치권의 현안으로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동안 최근 몇 년 사이 대학 등록금이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자식이 대학에만 가면 그저 기쁘고 고마운 학부모들의 정서 속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가파른 인상률이 수용되어 왔지만, 학생들에게 대학은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대학 복수지원제의 실시, 대학정원의 자율화,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도입,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 실시, 대학입시전형의 자율권 확대, 대학의 다양화 및 특성화, 대학의 전·편입학 기회의 확대 등으로 대학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눈에 비친 대학, 그 속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전이나 별다

름없이 구태의연할 뿐이다. 대학의 교수 확보율, 강의실 사정, 도서관 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등 여건은 오히려 교육개혁이 시작되기 이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초등학교에는 열린 교육이 확산되어 모둠별로 앉은 학생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육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데 비해, 대형 강의실에 학생을 모아 놓고 별로 달라지지 않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주입식 강의에 안주하는 대학교수들의 모습도 여전한 듯하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지 못하는 부실한 대학교육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취업준비를 위한 대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경제부담을 추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이들의 삶의 목표라는 서울대가 세계 200위권(아니 800위권 밖이라고도 한다)에 있을 만큼 교육여건, 교수확보 등 모든 면에서 뒤져 있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교육의 문제점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교육제도를 통과하면서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이 살기는커녕 오히려 말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교육당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개혁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초·중등학교에 열린 교육운동이 확산됨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학이 앞장서 이를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지금 사립대학에는 대학입시 전형의 자율권이 주어지고 있다. 모든 대학이 획일적 기준, 즉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던 수년 전에 비해 오늘날 다양한 입시 전형방식이 제공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대학 선택과 진학지도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학력고사 성적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과 학과가 서열화되고 이에 따라 아이들 인격 자체까지도 서열화되었던 지난날의 입시제도가 우리 교육에 가져온 폐해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대학은 더욱 더 과감하게 입시 전형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입시행정이 다소 번거로울지라도 학부와 학과에 따라 다양해진 전형방식은 몰개성적·획일적 인간 양성에 매몰되어온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줄 촉매제가 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까지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또한 한층 비싸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부실한 대학교육으로 인한 취업대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학부모들은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국도의 성적 경쟁에 시들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대학입시 전형방법의 다양화, 이것이야말로 대학이 별 재정 부담 없이도 지혜를 짜내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닐까? 대입 전형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목 성적이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현재의 전형 방식을 하루 속히 탈피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인간적인 학창시절을 되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실현되기를 대학에 기대해 본다. ■

오성숙/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주간시민』 편집국 기자와 한국여성민우회 편성실장 등을 지내고, 현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